

이오세

[IP世]; IP세상, 세상을 세움



2011년 8월호 [통권 제8호]

특집기사

최성애 박사와의 인터뷰

역량 칼럼

지식재산 전문성

영재 칼럼

Creative Performer

심리·정서 칼럼

청소년 우울과 공부 (1)

인지·발달 칼럼

작업기억의 개념과 기능

CONTENTS



특집기사	최성애 박사와의 인터뷰	03
센터칼럼	역량 칼럼 [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 7] 지식재산 전문성	07
	영재 칼럼 [알 수 없는 우리아이 1] Creative Performer	08
	심리·정서 칼럼 청소년 우울과 공부 (1)	10
	인지·발달 칼럼 [영재 사교력의 비밀 1] 작업기억의 개념과 기능	12
교육원 소식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소식	14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소식	15

일단 일을 시작하면, 목표로 한 모든 것을 성취할 때까지 손떼지 마라.

우리는 무엇이든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에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도달하지 않으면 안될 목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리 퀴리 (마리아 스쿼도프스카 퀴리)

폴란드 바르샤바 출생. 방사능 분야의 선구자.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수기 공모 및 의견 수렴

〈앞세〉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앞세〉에 대한 의견이나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환영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기 분량 : A4 용지 한 페이지

접 수 처 :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이윤조 전문위원

tel. 02)3459-2744, email yo3283@kipa.org web : www.ip-gifted.org/cgye

앞세 August 2011 Vol. 8

발행일 2011년 8월호(통권제8호) **주관기관** 특허청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우) 135-980)

발행인/편집인 허진규 **인쇄처** 서울폴리컴 (02)783-0778 **인쇄** 2011년 8월 19일 **발행** 2011년 8월 19일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뉴스레터 앞세」※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회의 견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보듬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HD뇌마음과학 연수센터장 최성애 박사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할까. 최성애 박사는 그렇다고 말한다. 관계를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른바 ‘관계의 달인’들은 ‘사랑의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서로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고, 서로 헐뜯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이른바 ‘관계 폭탄’들은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더라도 정작 전하는 방법을 몰라 관계를 불행하게 망쳐 버리고 만다.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사랑도 비로소 제 구실을 한다.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혼율, 깊어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감정의 골.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계의 골을 개선하기 위해 중횡무진 활동하는 최성애 박사를 8월 일세에서 만났다.



일세 부모와 자녀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 등 사람들 간의 관계에 스며든 독을 해독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위한 “사랑의 기술”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특히 감정을 다루는 방법,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과학적인 인간관계의 해법을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많은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요.

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사람들을 좀 더 성장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심리학의 주류는 인간의 어두운 면과 우울증, 방어기제 등 정신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쪽이 주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시카고 대학에서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이며 대가이신 칙센트미하이 박사님의 제자가 되어 일찍부터 긍정성이 건강, 행복, 창의력, 영성성, 심신의 성장과 관계 발전 등에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연구는 긍정심리 쪽으로 진행되어 가는데 역설적으로 세계 각국에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혼을 예방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고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현 인류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한 인간의 일생에서 튼

튼한 전초기지(base camp)이니까요. 세계 각국이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과 우울이 일상이 되어 가고,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감정적인 유대가 약해지는 것은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가장 안전한 기지가 되어야 할 가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 파괴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사방에 이러한 불난리를 진압하는 소방관으로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일세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어지는 시대도 드물었지만, 이렇게 방치되고 유기되는 시대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다루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여, 가장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이나 소회라고 할까요. 어떠신지요.

최 가장 대표적인 장면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느라 수고하는 산모를 위한 최고의 배려라고 하며, 비싼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산후 조리원은 산모를 위한 요가강습부터 마사지까지 호화로운 서비스로 배려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산모와 아이와의 첫 만남에 대한 배려는 너무나 실망

스럽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 순간 신생아는 어머니와 첫 만남을 축복할 새도 없이 의사들의 손에 의해 엉덩이를 찔끔 얻어맞고 흡인주사기로 입속을 훑어진 뒤 간호사의 부지런한 손으로 옮겨져 씻긴 다음 포대기에 뽀뽀 싸인 채 요람으로 직행합니다. 10달 동안 고대해 왔던 첫 조우는 분주하고 신속하게 끝이 나고, 엄마의 품안에서 안정할 수 있는 기회가 신생아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서적 안정과 애착형성은 세상과 자신을 연결해 주는 끈에 대한 기초신뢰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감성코칭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과과의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탐색하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GPS를 장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 삶을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로 검증되고 효과가 입증된 이런 관계의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제가 주로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세 강조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감정의 중요성’입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감정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일깨워주고 계시구요.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최 마차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차는 말과 수레로 이루어져 있지요. 마차를 사람의 인지행동과 정서에 비유한다면 무엇이 말이고 무엇이 수레일까요. 최근

많은 연구들은 정서가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정서가 효율적인 인지와 바람직한 행동을 이끈다는 것이지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있는 아이들의 인지적 성과, 학업 성취 등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입니다.

감정은 신체생리화학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 배려, 사랑, 존중과 같이 긍정적인 감정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 신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튜닝이 잘 된 자동차처럼 신체 시스템의 동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작동도 원활해집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즉시 심장박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심박변동율이 고르고 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신경, 호르몬, 생화학적 작용에도 당달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몸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효과는 즉각적이면서도 오래가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조절하는 방법을 일러준다면, 그들의 인생행로 또한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세 청소년 자녀를 두신 많은 학부모님들은 사춘기를 맞은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님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최 많은 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도 잘 듣고 고분고분 순하기만 하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도통 말도 듣지 않고, 태도는 전에 없이 반항적이며, 감정은 하루에도 열 두 번씩 하늘로 솟구쳤다, 땅속으로 곤두박질치듯 변덕스럽다고 걱정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 앞에 부모님들께서 당황스러워 하는 건 당연할 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과 부모님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뇌가 이해의 열쇠입니다. 청소년의 뇌는 아동의 뇌나 어른의 뇌와는 다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는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청소년기에 대대적인 확장공사를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뇌의 많은 회로들이 새

로 연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감정 등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의 감정이 쉽게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뇌가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느라 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나 우울해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해주어야 합니다. 사춘기 입장에선 변덕스럽고 감정이 격한 것이 정상입니다. 이를 인정해주면 감정적으로도 편안해지고, 감정의 뇌가 안정적이면 전두엽도 활성화됩니다.

앞세 가정마다, 부모마다 가훈도 있고, 강조하는 가치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찌보면, 부모님은 한 평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아이의 초석을 닦아주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 그들이 그들 삶의 주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모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감정적 정서적 안정감을 배양해주시고 나면 나머지는 아이들이 알아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사랑, 존중, 감사, 배려의 가치를 몸소 알려주시고, 가정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즉, '내가 사랑 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배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등을 가정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아이들은 강인한 생명력이 넘치는 심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위해서 물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꾸중하고 칭찬할 때에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하지요. 아이들도 자기가 혼날 짓을 해 꾸중을 들었다고 인정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인격이나 성격을 건들이며 꾸짖지 말고, 상황과 행동을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인격을 건드리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꾸짖게 되면 문제해결능력이 커지는데 아이의 인격이나 성격에 대해 초점을 두면 아이는 심한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꾸중을 할 때는 먼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 부모가 느낀 기분을 말



한 뒤, 부모가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칭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에도 도움이 되는 칭찬과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도 잘못 하면 오히려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칭찬해야 합니다. 성격이나 인격에 대해 칭찬하지 않고, 결과보다는 노력이나 행동에 대해 칭찬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 칭찬하고(칭찬받을 행동을 했을 때 즉시 칭찬), 아이가 한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 어떤 점을 잘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세심하고 민감한 배려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세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양육을 위해 당부의 한 말씀 전한다면요.

최 자신부터 먼저 편안해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된 부부관계를 보여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부모님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들 중에 부모님이라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확실히 실수를 하셨을 때에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 줌으로써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럴 때 사과하고,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된다”는 교훈이 굳이 훈계나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입니다.

부모(교사)도 대화를 하다가 격하게 감정을 보이기도 하고 상황을 잘못 오해해서 아이를 야단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심하게 야단을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내가 좀 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엄마가 아까 너에게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해볼게” 라든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마음 아팠지?” 라고 하면서 먼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실수를 인정하면 ‘아, 어른들도 실수를 하는구나. 실수를 할 때는 이렇게 고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최 성 애 박사님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시카고 대학에서 ‘몰입’ 이론으로 유명한 칙센트미하이 교수의 지도하에 인간발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심리 및 가족치료사 자격과 가트맨 인스티튜트에서 가트맨공인부부치료사 자격을 획득하고 미시간 공과대학 심리학과 교수, 핀란드아대학 초빙 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가정의 희망 찾기에 앞장 서 온 최성애 박사는 가족간의 상처와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치유행동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신념하에 삼성경제연구소, 전경련, 공군사관학교, 법원가사조정관 등 다수의 기업 및 기관에서 가트맨식 부부치료와 자녀의 감정코칭에 관한 강연을 해오고 있다. 최근 위기청소년들의 심리상담 및 각종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과부 Wee 프로젝트의 자문 및 교육을 맡고 있다. 번역 및 저작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부부 사랑의 기술』,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부부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등이 있다.

인터뷰 · 정리 : 최민경 전문위원



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 ⑦

지식재산 전문성

최근 인터넷 검색창에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대기업 대상 특허침해소송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언론뉴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특허 괴물인 미국 인텔렉추얼 벤처스(IV)가 메모리반도체 제조회사인 우리나라 하이닉스반도체와 일본 엘피다를 대상으로 D램과 플래시메모리 제조기술에 관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텔렉추얼 벤처스(IV)는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인 네이션 마이어볼드가 설립했는데, IT(정보기술), 바이오 분야 등에서 3만5000건의 특허를 확보했으며, 지금까지 20억달러(약 2조 1000억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수입은 특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회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괴물, 특허소송과 같은 이슈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차세대영재기업인은 특허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재산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영재기업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 지식재산전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재산전문성을 생각한다면, 지식재산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변리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재기업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재산전문성은 이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기업을 운용하면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지식재산전문성이란 미래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지식재산을 가지고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 검색 및 해독방법,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을 활용하여 특허를 분석하고 평가 및 출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전문성은 지식재산 창출능력과 지식재산 관리능력으로 구분됩니다. 지식재산 창출능력은 지식재산 창출에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 수집, 분류, 배치하고 특허명세서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해석하여 특

허 출원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문서에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며, 지식재산 관리능력은 발명 및 특허에 대한 시장가치평가방법과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다시 발명·특허 정보 검색 및 분석능력, 특허명세서 작성능력, 발명·특허 사업성 평가능력, 지식재산권 확보능력으로 구분됩니다(표 참고). 자녀가 지식재산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이미 다니고 있는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과정에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니 그 내용에 따라 잘 배우도록 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특허출원과정교육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IP Campus의 특허관련교육을 받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하위역량	구성요소	개 념
지식재산 창출능력	발명·특허 정보 검색 및 분석능력	지식재산 창출에 유용한 발명·특허 정보를 수집, 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
	특허명세서 작성능력	지식재산 창출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서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지식재산 관리능력	발명·특허 사업성 평가능력	발명·특허에 대한 시장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지식재산권 확보능력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윤 조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 교육학 박사
- 직업교육, 환경교육 전공
- yo3283@kipa.org
- 02-3459-2744



알 수 없는 우리아이 ①

Creative Performer

많은 영재 학생들과 학부모님, 선생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아이의 성격을 모르겠어요? 학생의 성격이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흔히 영재의 특성 중 가장 많이 회자 되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요즘은 영재교육 뿐 아니라 국가적 인재 육성의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 되고 있지요. 하지만 창의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창의적 성향이 두드러진 영재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영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문득 생각나는 인물들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업적을 이룩한 예술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과 같은 musician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예술가 뿐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이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든 창의적인 열정 지닌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오해하도록 하는 몇 가지 특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자녀들과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 수 있는 방학이라는 기회를 통해 영재자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해 자녀의 잠재성 개발하고 부모님과 자녀간의 상호이해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의성을 연구한 저명한 학자인 칙스앤마하이

(Csikszentmihalyi)는 창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습니다.

높은 활동성(신체적 에너지)과
동시에 고요함과 조용함을 즐김
(Energy/ Rest)

외향적이며 동시에 내향적임
(Extroverted and Introverted)

개방적이며 동시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감수성을
지님 (Openness/ Sensitivity)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특성들은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어우러져 있어 주위 사람들로 인해 매우 혼란스럽고 파악하기 힘든 성격이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때는 자녀가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나 또 다른 장면에서는 수줍어하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치 마이클 잭슨의 예와 같이 무대에서는 대담하고 활발하며 매우 에너지가 넘치나 사적인 생활에서는 수줍음이 많고 사람들과 관계를 피하고 조용히 은거하는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성향들이 함께 공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창의적 성향을 지닌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는 학생 본인들조차도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가 상황에 따라 나타내는 태도가 너무 달라서 주위에서 아이에 대해 산만하고 제멋대로 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느끼지만, 본인도 자녀의 상충적인 특성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며,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재 학생의 경우는 심한 경우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이 나타나는 상충성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특히 사춘기 영재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관이나 문제의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성향으로 인해 다양한 행동, 태도, 성격 등을 동시에 나타내는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까지 보아온 자녀에 대한 시각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고 객관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관찰해 보십시오. 영재자녀를 둔 한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과제와 연관되어 있는 팀 활동이나 본인이 흥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히 대화하며 심지어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의견에 대해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마음을 터놓거나 서로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친구가 없

어 매우 심각하게 걱정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자녀가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더 답답하고 앞으로 봉사활동 등 친구들과 함께 하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향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수줍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자녀의 태도를 고쳐보시려 부단히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상담해 본 결과, 어머니의 염려와는 달리 친구관계에 대해 특별히 불만이 없었으며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염려로 인해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의적 행동가의 특성을 지닌 영재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를 부모님 자신의 평범한 시각으로 보려하지 마시고, 자신이 익숙한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해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찰해 보신다면 자녀가 각기 다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는 환경과 이유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성향이 산만함이나 성격적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창의성이라는 강점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창의적 행동 및 수행을 가능케 하는 필연적인 원동력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강점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 드려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이해와 관심일 것입니다. 이번 방학 사랑스러운 자녀의 창의적 성취와 수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보시는 것을 어떨까요?

이 행 은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 교육심리, 영재창의성 전공
helee71@kipa.org / 02-3459-2745



청소년 우울과 공부(1)

청소년기 우울증이란?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의 흥미와 즐거움이 사라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행동이 쳐지고 느리게 되거나 그 반대로 불안해하고 안전부절 못하는 경우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청소년기에 나타날 때 청소년기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

에너지 수준 :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어 행동이 느려지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사교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며, 자신의 능력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임.

신체 상태 : 잠이 들기가 어렵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쉽게 깨며, 늘 피곤해 하는 경향, 반대로 무기력하여 과다수면이 나타나기도 함. 두통이나 복통 등의 다양한 통증을 호소, 건강을 잃을 것 같은 걱정을 호소.

태도 : 자신이나 세상,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 무기력감, 자기 비하적 사고, 자신의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기 어렵다고 생각.

기분 : 슬픈 감정이 지속, 주변 사람 및 과거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던 일에 대해 흥미 상실, 즐거움의 경험 상실. 화를 잘 내고 짜증 증가, 자살사고 및 죽고 싶다는 이야기 증가.

행동 : 행동이 느려지고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시행하기가 힘들어짐. 초/중기 청소년기에는 반항적 행동 혹은 반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우울한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며 후기 청소년기에는 자살 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식욕 감소와는 달리 오히려 폭식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자신은 형편없는 존재라는 식의 자기 비하적 생각,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열등감 또한 높아지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매우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대략 청소년기에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며,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도 약 2.1%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 중 2/3가 청소년기에 다시 재발하기 쉬우며, 우울 증상을 나타낸 빈도가 적고 첫 발병의 시기가 늦으며 기간이 길지 않고 증상이 심각하지 않고 빨리 치료를 받았을 때 우울의 예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시기입니다. 성인들과는 달리 정서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 내면적인 심리적 강도도 성인들과 비교하여 훨씬 떨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성인들의 경우에는 내면의 심리적인 강도가 더 강하므로 별 타격없이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직 내면적인 심리적 강도가 약하여 견디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5세 어린 아이가 신체적 면역성이 훨씬 약하여 동일한 정도의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어른 보다 훨씬 쉽게 감기에 걸리

고 훨씬 심한 정도로 앓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청소년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서적·심리적 강도 수준을 능가하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중한 양의 학업과 경쟁,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과중한 부담, 휴식 시간의 부족 등이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강도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무기력감을 경험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 다른 집 애들은 더 많은 분량의 과업을 잘도 감당하면서 성적도 좋고 우울이고 뭐고 없는데, 우리 집 애는 힘들어하지?..... 신체적 면역성의 정도도 각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듯이 정서적·심리적 강도 수준 또한 각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 및 그 이후 후천적으로 어떻게 키워졌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많은 경우, 학업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울감이 높으면 왜 공부가 잘 되지 않는지는 다음 호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민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심리학 박사 / 상담심리학 전공

ysm0714@kipa.org / 02-3459-2928



영재 사고력의 비밀 ②

작업기억의 개념과 기능

지난 시간, 두뇌의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은 우리의 행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며, 계획하는 사령관의 기능을 한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전두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작업기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 머리를 써서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의 요체가 바로 작업기억의 기능입니다. 더불어 작업기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에는 필연적으로 ‘태생적’인 특징이 포함됩니다. 타고난 두뇌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것이지요. 지적 능력은 타고 나는 것인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인가? 만약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생을 통해 한 개인이 가지게 되는 지적인 능력은 발전이나 퇴보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인가? 사고력을 둘러싼 무수한 질문들 답하기에 앞서 우선, 인간의 지적 능력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지적 능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측정 도구는 지능지수, 곧 지능(Intelligence Quotient; IQ)입니다. 사실, 지능은 혈당이나 심박수처럼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은 ‘지적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정의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 낸 개념일 뿐입니다. 지적 능력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능검사들 예컨대, 웨슬러 지능검사, 알프레드 비네 검사 등을 활용하여 이를 수치화한 것이 소위 IQ로 통칭되는 지능지수인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영재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영역에 영재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영재 선발의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지능지수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지능검사는 구체적으로 지적 능력의 어떤 부분을 측정하고 있기에 한 인간의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지능검사인 웨슬러 아동 지능검사(WISC,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가 측정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크게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나뉘며, 다양한 지적 능력을 측정하지만, 주로 주의력, 사고력, 구성력, 기억력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전두엽이 간여하는 지적 능력들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전두엽의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작업기억 검사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업기억의 ‘용량’ 혹은 ‘크기’를 재는 것입니다. 작업기억(working memory)은 최근 들어 매우 대중화된 용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낯선 개념입니다. 작업기억은 기억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흔히 창고로 비유되는 기억과는 좀 다릅니다. 창고로 비유될 수 있는 기억은 장기기억(long-term memory)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는 지식창고입니다. 이름, 주소, 나이, 가족에 대한 정보와 같이 개인적인 정보들, 그리고 역사, 과학지식 등과 같은 일반적인 지식들이 이 장기기억에 저장됩니다. 이에 반해 작업기억은 말 그대로 기억의 작업대를 일컫습니다. 우리

가 역사 시험을 볼 때, 태조 이성계가 먼저 인지, 세종 대왕이 먼저 인지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조선의 왕들과 관련 정보를 인식의 작업대인 작업기억 속에 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특정한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관련 서가에 꽂힌 특정 도서 및 자료를 펼쳐 보아야만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곳, 혹은 끄집어내어져 있는 그 상태를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 작업기억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마치 도서관에 있는 책상의 크기가 달라서 한꺼번에 펼쳐놓을 수 있는 책 수에 제한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작업기억의 크기가 커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정보를 동시에 끄집어 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업기억의 크기가 작아서 단지 몇 개의 정보만을 동시에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세 사람의 전화번호를 10초간 암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의 전화번호만 암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기억의 크기가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전두엽 기능이라고 대유됩니다. 물론 작업기억의 크기만이 전전두엽 기능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인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작업기억은 훈련으로 증진될 수 있는 것일까?

작업기억 향상 훈련

N-back 두뇌 훈련은 인지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n-back 훈련은 매우 단순합니다. 컴퓨터를 통해 시각적이거나 청

각적인 자극이 연이어 제시되는데, 제시된 단서들 중에서 ‘n’개 이전의 단서를 기억했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훈련의 전부입니다. 당연히 ‘n’의 크기가 커질수록 훈련의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즉, 2개 이전에 나왔던 단서를 기억해내는 것은 3개 이전에 나왔던 단서를 기억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가능성의 심리학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렌 령어(Ellen J. Langer)는 ‘가능성의 심리학’을 주창하며,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발적으로 보이는 그녀의 주장에는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우리의 노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N-back 훈련은 사고력 혹은 지적 능력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가능성의 심리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글을 마무리하며 사족을 달아봅니다. 많은 부모님 들께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의 두뇌 기능을 혁신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세부적인 방법을 첫째, 둘째 식으로 나열한 바로 그 정보가 성공으로 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답을 찾아 헤맬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 되었던, 자신만의 A-Z, 혹은 규칙을 생성하는 그 과정, 그 시간동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그 고민만이 본질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민에 바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최민경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심리학 박사 / 인지 및 발달심리학 전공
i321@kipa.org / 02-3459-2743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은 인문소양을 바탕으로 미래통찰력, 지식재산능력,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IP-CEO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량 신장을 위한 온·오프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지식재산권, 미래인문학, 기업가정신, 미래기술/지식융합(이상 1년차 기본과정), 미래기술2/기술융합, 융합지식경영, 창조인문학, 기업사례연구(이상 2년차 심화과정)로 구성되어 있다. 오프라인교육은 온라인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기술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및 아이디어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창조성과 협력성 신장을 위해 *IP-CEO협업모형에 따라 진행된다.

IP-CEO협업모형 : Issue-Posting(분야별 전문가 교육을 통한 문제제기), Collaboration(조별 토의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 Elaboration(발표, 전문가 평가 및 피드백), Outlying(사후관리를 통한 실적화)

교육과정 소개

▶ 심화과정 (2년차)

구분	교육분야	목표	내용
온라인 강의	기술융합	지식융합, 기술융합, 산업융합의 종합적 이해를 통해 창의적 인재상인 융합적 영재기업인 양성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과 나노기술(NT), 우주기술(ST) 중심으로 기술융합 소개 융합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윤리 측면에서 살펴보고, 호모 퓨처리스(미래의 인류)를 전망
	미래기술 심화	미래사회의 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창조력 함양을 통해 실제 기술 창조 역량 신장	10년~20년 뒤에 한국의 부(富)를 창출할 다양한 미래 기술들과 그 원리를 URL/동영상 등을 토해 소개하고 학습
	융합지식 경영	발산적 사고를 통해 경영전반에 대한 융합지식과 미래사회의 리더십을 재화하고 경영혁명의 실제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발상의 파워(발상력) 생성을 습득화 융합지식경제경영 이론과 실제 지식경영의 리더십 M&T
	창조 인문학	창의성 발현의 저변으로 인문학적 기술 예측 및 적용 능력 발현	역사와 철학을 통해 시대 변화의 흐름을 파악, 문학과 미학 등을 도입
개인 블로그	개인별로 전문 기술 분야를 정해 최신의 기술동향과 전망을 파악		
온라인 토론	기본적인 의사소통 역량뿐만 아니라 협상과 설득의 과정 학습 쟁점에 대한 토론 이외에도 공동의 의견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단지능 구현 경험		
SNS 활동	교육원 구성원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활용		
커뮤니티	기본과정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 신장활동 및 조교의 지원		

교육 일정

▶ 온라인 교육

과정	개강일시	교과명	차시
기본과정	8/8	지식재산권	12
		미래기술(중등)	6
		지식융합(고등)	6
심화과정	8/22	지식재산권	1
		미래인문학	7
	8/8	기업사례연구	5
		창조인문학	6
	8/22	융합지식경영	8
		미래기술(중등)	7
		기술융합(고등)	8

▶ 오프라인교육

지난일정 : 7월 9~10일

• 기본과정 : 로봇과 인간의 미래 • 심화과정 : 기업문제해결

다음일정 : 8월 16~20일

• 기본 및 심화과정 하계집중캠프
• 세부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알립니다!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유튜브 공식 채널 오픈!

- <http://www.youtube.com/ccekaist>
- 온·오프라인 강의 공유
- 대외활동내역 및 학생들의 온·오프라인 활동사항 업로드





본 교육원은 '미래 기술을 주도하는 창조적 영재기업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사업제안 과정(기본)과 사업예비 과정(심화)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 과정은 'Dream the future(미래기술 선견)', 'Discover the future(기술 타당성 탐색)', 'Develop the future(사업 타당성 탐색)', 'Deliver the future(사업 제안)'의 4개의 테마로 운영됩니다.

1기, 2기 교육생들은 각각의 테마를 바탕으로 7박 8일의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기 교육생은 'Develop the future' 테마 하에서 사업 타당성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기 교육생들은 'Dream the future' 테마 하에서 미래기술을 선견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찾아보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8월 오프라인 집중교육

8월 오프라인 집중교육은 7박 8일의 일정으로 포항공과대학교 캠퍼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상	프로그램	학습내용	학습기간
1기	사업아이템 기획(고객분석)	고객의 필요성(needs)을 발견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업 아이템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합니다.	8월 1일 ~ 8월 5일
	사업전략수립(파괴적 혁신)	사업아이템에 대한 파괴적 혁신성을 검토하고, 사업 전략을 수립합니다.	8월 5일 ~ 8월 6일
	사업기획서 작성	고객 분석과 파괴적 혁신 전략을 접목하여 사업기획서를 작성합니다.	8월 6일 ~ 8월 7일 (산출물 : 사업기획서)
2기	From the Future 미래선견	미래 사회를 상상하고, 상상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사업 아이템들을 기능 기반으로 찾아봅니다. 기능 기반으로 찾아본 사업 아이템들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구체화합니다.	8월 9일 ~ 8월 14일 (산출물 : 기능 기반 미래 상상 보고서)
	To the Future 기술예측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배웁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 기술을 예측해 봅니다.	8월 7일 ~ 8월 12일
	기업가 정신 기르기	기업가 정체성의 핵심인 기회 포착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를 자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8월 12일

이달의 추천

이달의 추천은 기업가 정신 관련 온라인 토론인 '오픈 톡'의 우수 결과물과 우수 지식지도 및 성찰일지를 매달 선정하여 교육생들과 함께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 2기 정수빈 : 이번 학기 막바지(<http://blog.naver.com/jjssbb0318>)
- 2기 김수빈 : 7월 성찰일지(<http://blog.naver.com/kelly0250>)
- 2기 김민수 : 미래기술구체화과정을 마치면서(<http://blog.naver.com/okdol00>)

(2기 정수빈)

포스텍영재기업인교육원은 2년 동안 진행하는 교육이다. 구글과 애플 같은 차세대 글로벌 기업의 창조적인 리더들을 카우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전체적인 교육원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미래에 유망한 기술들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나의 관심분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해주었고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던 분야에 대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내가 모르고 있던 분야와 관심이 없던 분야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나노기술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나노기술이 차세대 유망 기술이고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과 대단하다는 을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엇에 구체적으로 쓰이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교육원에서 내준 과제로 조사해 보니 내가 관심 있던 컴퓨터 분야에서도 나노 기술은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컴퓨터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줄 기술로 꼽히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통해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한 분야만 알게 된다면 그건 폐쇄적이고 좁은 지식일 것이다. 정말로 뛰어난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온라인 교육 일정

- ▶ 가을학기 온라인 교육 : 9월 5일 시작(1기/ 2기)
- 가을 학기 온라인 교육 시작과 관련된 사항은 8월 말경에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학습센터]- [학습 공지] 게시판)를 참고하세요.)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소식

9월 연합캠프 기간 중 학부모 특강

오는 9월에 있을 차세대영재기업인 연합캠프 기간을 이용하여, 영재 자녀 양육에 도움을 드리고자 학부모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됩니다. 학부모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 기 | '11년 9월 23일, 24일 중 1일(향후 일자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사례 소개 -2시간/팀 활동 - 1시간)

| 교육내용 | 영재자녀 양육과 관련된 이슈, 상담사례, 양육방법 등에 대한 강의 및 자녀양육관련 팀 활동

| 문 의 | 차세대영재기업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http://www.ip-gifted.org/cgye/center/notice.asp>)

8월 상담 일정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는 '개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 개인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이후 진로설계에 기반이 되는 자기 이해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적합한 개별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7~8월에는 방학을 맞이하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담 신청은 개별 안내하고 있으니, 메일을 참조바랍니다.

공모 안내 : 우수 발명인재 성공사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교육을 통하여 개인 또는 사회적 역량을 발전시킨 학생을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발명교육의 확산 및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최/주관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공모대상 | 발명교육을 받아본 경험 혹은 발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례를 갖고 있거나,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

| 공모기간 | 2011. 7. 25(월) ~ 8. 29(월)

| 접수 및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02-3459-2747)

| 제출처 (이메일 접수) | 3538@kipa.org

※ 공모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